

“한·중·일 교류 통해 광주문화수도 위상 확고히 할 것”

‘(재)동아시아문화도시’ 초대 위원장 정 동채 전 장관

광주국제영화제·ACE Fair 등 문화단체 주도

“亞문화전당, 콘텐츠산업 발전소 역할 노력할 것”

광주를 대표하는 주요 문화행사와 단체는 ‘2013 광주 ACE Fair’,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도시’, ‘광주국제영화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등이다. 이 모든 행사와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는 정동채(63) 전 문화부 장관이다. 그의 직함은 ‘2013 광주 ACE Fair’ 추진위원장,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위원장, 광주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이다. 2일 출범한 ‘동아시아문화도시’ 초대 위원장을 맡은 정 전 장관은 “한국의 문화도시로 지정된 광주는 내년 한국·일본·중국 등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행사를 치를으로써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의 의미는?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문화교류 행사는 처음이다. 광주가 한국의 문화도시로 선정돼 집중적으로 문화교류행사가 열리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세계적인 도시인 일본 요코하마, 중국 상해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광주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치를으로써 아시아 문화수도, 세계의 문화수도로도 약할 수 있다. 시민들은 오는 2015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파급효과를 미리 체험하는 장이 될 것이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가’라며 회의를 품었던 아시아 국가들이 광주의 위상을 실감할 정도로 행사를 치르겠다.

—정부의 문화전당 법안화 방침에 대한 생각은?

▲법안화하면 정부가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등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회장으로서 광주시와 정부간 공감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 광주시의 ‘국가 소속으로 운영해야 한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오는 2015년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마냥 대립할 수만은 없다. 정부와 대화,



타협을 거부하고는 일이 안된다.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역할, 정부가 스스로 광주를 위해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 개관과 운영을 포함한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4조5400억원) 가운데 90% 이상의 투입시기가 2015년~2023

년까지로 잡혀 있다. 그동안 문화전당 랜드마크, 옛 도청 별관 보존 논란으로 국비 예산 4300억원을 못받았다. 옛 일을 반면교사 삼아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정부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문화전당 콘텐츠 기획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콘텐츠 안이 현실적으로 구체성이 미흡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물론 공간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문화전당을 축으로 광주 전체를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향점은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다. 문화전당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소로서 역할을 하도록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

—광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서는 바람이 있다면?

▲부산, 전주, 부천 영화제와 함께 국내 4대 영화제로 키우는 게 꿈이다. 아시아문화수도 광주에서 치르는 영화제가 너무 침체돼 있다. 올해 영화제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뤄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확고한 재정지원을 받는 영화제로 만들겠다.

—현 유진용 문화부 장관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면?

▲장관으로 재직할 때 유 장관이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었다. 서로 마음을 잘 알고 통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부다페스트·아부다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3파전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전이 광주, 부다페스트, 아부다비 등 3파전으로 좁혀졌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수영연맹(FINA)이 1일 오후 6시(현지시간)까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제안서 최종본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등 3개 도시가 최종 접수했다. 애초 4파전으로 예상됐으나,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는 신청 직전까지 고민한 끝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는 다른 국제대회와 달리 초본, 중간본, 최종본 등 3단계로 제출하는데, 광주는 지난 4월 PDF 파일로 구성된

초본을 냈으며, 중간본은 초본을 보완해 책자로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최종본을 제출한 광주는 오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마지막 공식 절차인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된다. 최종 프리젠테이션은 유치제안서 최종본을 접수한 도시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FINA집행위원 22명은 3개 도시가 제출한 유치제안서 최종본을 점검한 뒤 오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개최도시를 결정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강진청자, 하늘길서 만난다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기내 면세품 판매

강진군 청자박물관에서 생산되는 청자가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전 노선에서 판매된다.

2일 강진군 청자박물관에 따르면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는 23개 국가, 71개 도시, 91개 모든 국제선 항공기 기내에서 강진군 청자박물관이 생산한 ‘청자 상감운학문 매·주병 미니어처세트<사진>’가 면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판매되는 청자는 고려 청자의 대표적인 형태와 문양인 상감기법의 운학문 매·주병을 약 15cm 크기로 축소해 특별한 제작한 기념품으로, 무병장수의 염원이 담겨 있다. 문양을 표현한 상감 기법과 비색 유약이 특징이며, 1000년 전 고려시대 청자 장인의 뛰어난 공예 기술을 고스란히 재현한 작품이다.

이번 강진 청자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기내 판매는 한국적인 미와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세계인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판매 상품을 찾고 있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자의 세계화를 위해 열정을 쏟아온 강진군의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그동안 강진군 청자박물관은



지난 2월부터 작품 선정, 크기, 문양, 색깔은 물론 포장 상자의 재질, 문구 등에 이르기까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기호에 맞는 상품 개발을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협의해왔다.

4개월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의 까다로운 선정 절차를 통과, 국내·외 약 900여 개 인력의 아시아나항공 기내 면세품에 비로소 그 이름을 올리게 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기내 강진 청자 판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진 청자의 세계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l@

광주이어 日 요코하마·中 상하이,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광주 추진위 출범... 3개도시 본격 문화교류

대한민국 광주·일본 요코하마·중국 상하이 등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돼 교류 행사를 치르게 됐다.

2일 광주시 따르면 한국의 광주, 일본 요코하마가 최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중국의 상하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는 이들 도시를 서로 오가며 문화교류 행사를 펼치게 돼 ‘문화중심 도시 광주’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일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추진위원회는 한·중·일 3국 간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열리는 문화교류 행사를 담당한다.

추진위와 광주시는 내년 3월 동아시아문화도시 오픈행사를 시작으로, 3~9월까지의 동아시아

유니버시아드 캠프 등 15개 행사를 연중행사 개최한다. 10월에는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 등 17개 행사와 폐회 행사를 치른다.

시는 향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를 회원으로 하는 (가칭)아시아문화도시협의회 구성을 주도, 지속적인 문화교류 활동을 펼치는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유럽연합이 1985년부터 문화수도를 선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본뜬 한·중·일 문화협력 체계다. 2014년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각 1개 도시, 2015년에 중국 1개 도시, 2016년에 한국 1개 도시, 2017년에 일본 1개 도시를 선정하고, 2018년부터는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 매년 새로운 도시를 선정, 문화교류 행사를 펼친다.

강 시장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를 2015년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



강문태 광주시장이 2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당,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을 연계한 프

레행사도 치른다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3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현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 영광군향우회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I.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교 ~ 대학생
 - 단, 2012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 선발예정인원 : 총 22명 중 광주지역 11명, 영광지역 11명(영광군에서 선발)(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II.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기타서류 : 통장사본 (본인 명의로 한함)

III. 선발일정

- 서류접수 : 2013. 7. 1(월) ~ 7월 31일(수)
- 최종선정 : 2013. 8월경 발표 (2013년 장학 회보에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 2013.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VI.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 신청 및 문의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404 영주체육관 117호, 사무총장 강 대 의
- www.edaynews.com나 '재영광군향우회카페'
-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 yug42@naver.com(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간략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재광영광군향우가족중 광주 시민은 향우장학회 사무실로 우편접수하시면됩니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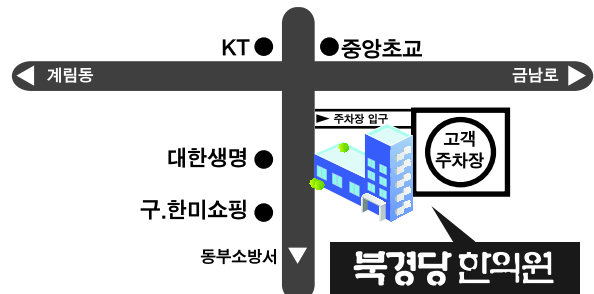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원 제(80)3호-승-26%로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전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